

목차

1. 지금은, 9시 45분 (미완성)	1
2. 첫 번째 투표	8
3. 소개합니다	12
4. 무제 - 채식 관련 발언문 (미완성)	16
5. 셀프인재영입당 출마선언캠페인 - 채식보장국회	17

지금은, 9시 45분

언젠가부터 멸종되어가는 생물이 늘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니, 2018년에는 가장 최근인 6,500만 년 전, 공룡이 사라진 다섯 번째 대멸종 이후, 제6차 대멸종기에 진입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대멸종기가 시작된 지 불과 2년 만인 지금 2020년에는, 멸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육지의 척추동물 515종이, 앞으로 20년 안에 멸종할 위기에 놓여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진 만큼, 기념일도 늘어났다. 흔히 잘 알고 있는 식목일부터 세계 습지의 날, 세계 물의 날, 지구의 날, 바다의 날, 세계 환경의 날,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세계 인구의 날, 대한민국 에너지의 날,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산의 날,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세계 차 없는 날, 세계 댐 반대 행동의 날, 생물종다양성 보존의 날, 골프 없는 날, 동물의 날, 반려동물의 날, 세계 야생동물의 날, 세계 실험동물의 날, 탈핵 시민행동의 날, 세계 채식인의 날, 잘 알려지지 않은 바다식목일까지, 환경과 관련된 기념일은 24여 개로, 1월을 제외하고 열한 달 동안 거의 2주 간격으로 있는 셈이다.

유치원생 때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환경 보호'를 외치며 말하던 환경 문제가 수질, 대기, 토양 오염이던 것이 언젠가부터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로 거대해지고, 이제는 '멸종, 기후 위기'로까지 심각해져 인류 멸종과 지구 멸망까지 거론되고 있다. 수많은 멸종 위기종 중에 인간도 포함되어 있고, 인류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극심한 환경오염으로 인간은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인류 멸망을 원치 않는다면 길게는 100~200년, 짧게는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라고 했다. 이 말을 한 게 2000년 즈음인 것을 감안하면 남은 시간은 최소 10년, 최대 80~180년 남짓뿐이다. 100년 전부터 인간은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해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구를 방치하다시피 해왔고, 지구의 날 50주년을 맞은 현재,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크게 나아진 것은 없어 보인다.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일깨우기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 재단과 일본 환경단체 아사히그라스재단이 1992년부터 매년 한 번 '환경 위기시각'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는 세계 90여 개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구, 학계, 기업 등의 환경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류 생존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지구환경의 악화 정도를 나타낸다. 환경 위기시계가 나타내는 12시는 '인류 생존이 불가한 최

후의 시간', 즉 '인류의 멸망 시각'을 의미하고, 0시 1분부터 3시는 불안하지 않음, 6시까지는 조금 불안, 9시까지 꽤 불안, 그 이후는 '매우 불안'으로 3시간 단위로 나눠 구분한다. 1992년 7시 49분이던 것이, 해마다 빠르게 종말의 시와 가까워져 1996년에 벌써 9시 13분, 작년 2019년에는 9시 45분으로 10시에 가까워졌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시간 15분.

또한, 국제 환경 연구 기관인 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 이하 GFN)에서는 지구 생태 용량을 계산하여 그 해의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을 발표하는데, 생태 용량이란 지구가 일 년 동안 생산, 자정 가능한 양을 뜻한다. 지구가 소화하고 감당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인간이 과도하게 물을 사용하고, 탄소와 각종 폐기물을 방출하며, 많은 나무를 베고, 많은 물고기를 잡는 등 제한된 자원을 무분별하게 써버리고 있기에 '생태 용량 초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당장 미래의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빚을 지게 되어 미래의 자원을 당겨쓰는 것으로, 돈으로 따지면 연간 예산을 다 써버리는 것이고, 식량으로 따지면 한 해 동안 먹을 만큼을 무계획적으로 다 먹어버리는 것과 같다.

1970년에는 12월 말, 1990년까지도 12월이던 생태적자일은 2000년 11월 1일, 2016년에는 8월 8일로, 점점 앞당겨져 왔고, 급기야 2019년의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7월 29일로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생태발자국의 빚을 지게 되었다. GFN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인류의 부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 아니라, 지구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인류는 '생태적 적자'상태에 있으면서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 슬퍼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보면 치유해서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 주려 돋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 유독 자연환경, 기후변화, 생물 등은 예외인 것 같다. 그런 이타심은 동종에게만 발휘되는 걸까. 어쩌면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 기후 위기가 국제적인 문제로 빈번히 거론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모른다기보다는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자연 생태계와 지구가 시한부 선고를 받아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달라지거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이들은 아직도 수두룩하다. 그들은 북극곰들이 빙하가 녹아 서식지를 잃고 떠돌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듣지 못한 걸까. 이제는 너무 흔한 일이 된, 해안가에 죽은 새들과 바다 생물들 뱃속에 비닐과 플라스틱 등의 온갖 쓰레기가 발견되는 광경을 목격하지 못한 걸까. 살아 있어도 플라스틱을 뱃속에 품고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아파하며 고통 속에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새들나, 플라스틱에 몸이 걸려 변형되고, 숨구멍에 빨대가 박혀 제대로 숨 쉬지 못하는 거북이들을 보지 못한 걸까. 사막화가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바닷 속에서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전혀 모르는 걸까.

아니면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이 보람이나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아서일까. 당장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아서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일까. 과학기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걸까. 어떻게든 비극적인 결말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무모할 정도의 낙천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걸까.

2048년이면 전 세계 해양 생물이 소멸할 것이라는 분석에 국제연합(UN)도 인정한 바 있다. 지난 55년 동안 9조 t에 달하는 세계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2.7cm 상승했다. 히말라야 빙하의 녹는 속도가 2배 빨라져 이미 4분의 1이 유실되고, 알프스 빙하도 지난 10년간 20%가 사라졌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국가 투발루의 9개의 섬 중 2개는 이미 물속으로 사라졌고, 당장 30년 뒤인 2050년까지 호찌민·방콕이 바다에 잠겨 여기서만 1억 5천만 명이 주거지를 잃어 어마어마한 기후 난민이 생길 것이다.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 연구에 따르면 2100년까지

최소 53cm까지 상승할 경우, 뉴욕, 상하이, 베네치아, 시드니, 마이애미 등 세계 주요 도시가 잠겨 기후난민 10억 명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 상승만이 문제일까. 이는 단순히 육지와 살던 집이 침수되고, 땅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생물들도 터전을 잃고, 좁아져가는 지구 표면에서 동식물과 인간의 거리도 좁아져,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감염병에 노출된 야생동물과 접촉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 인류의 700만 년 역사와 지구의 46억 역사가 담긴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들은 침몰하고, 인간 거주지의 각종 물질들로 해양 쓰레기와 오염은 훨씬 심각해질 것이다. 햇빛을 반사시켜 지구에 열이 덜 흡수되도록 하는 빙하가 사라지면서 지구의 온도는 더 빨리 올라가게 된다. 또, 빙하 속에 있던 탄소가 배출되며 온난화와 기후 비상사태는 가속화된다. 매년 1.1% 증가하는 세계 인구는 2030년에 86억 명, 2050년에는 98억 명으로 100억 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수와 강, 농지들이 잠기고, 해안가 근처 농지, 지하수의 염분 상승으로 식수와 식량 부족을 야기함은 물론, 갯벌이 침수되어 갯벌 생물 서식지 파괴가 생태계 다양성 파괴, 멸종으로 이어진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업이 무너지고 있고, 물 절도 사례가 늘고, 심지어는 모든 생물의 생명 유지 기본 요소 중 하나인 물을 거래하고 투자와 투기를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고대 바이러스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코로나19는 새로운 감염병 시대의 서막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2016년 시베리아에서 75년 만에 발생한 탄저병은, 수십 년 전 탄저균에 감염되어 죽은 순록들이 영구동토층에 묻혔다가 폭염으로 이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치명적인 탄저균 포자가 지면 위로 노출되며 발생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많은 공장들은 화석 연료로 돌아가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고, 전 세계의 가축 사육장에서 온실가스의 절반이 배출되고 있으며, 누군가는 계속 새로운 물건을 쉽게 사고, 버리기를 반복한다. 그나마 요즘 중고 거래와 적게 소유하기 유행이 아직 까지는 이어지고 있지만, 현대인, 도시인들과 뗄 수 없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전자, 가전제품들은 쉴 새 없이 쓸어내고, 온실가스 배출 1위 산업인 1차 금속산업의 제철과 시멘트를 재료로 자동차, 배, 비행기 그리고 건물들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소비된다.

이런 상황에도, 다수의 인간들은 조금만 덥거나 추우면 쉽게 냉, 난방 기구를 틈다. 누군가는 여름에 긴 옷을, 겨울에 짧은 옷을 입게 만들 만큼. 필요할 때만 자연을 이용하고 착취한 뒤, 편리함과 돈 앞에서 자연은 절저히 외면당한다.

2016년 전 세계 쓰레기 배출량은 20억 톤, 2018년 20.1억 톤. 이 쓰레기들의 일부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 전 세계 5대양에는 5개의 거대 쓰레기 섬이 생겼다. 그중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는, 1997년 발견 당시, 우리나라 면적의 약 7배인 70만km² 정도였지만, 12년이 지난 2009년, 140만km²의 크기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물에 녹지 않는 살충제나 폴리 염화비닐 등 독성물질의 농도 또한 2배가량 증가했다. 2018년에는 넓이가 160만km²로 대한민국의 16배, 서울의 2500배 크기로 커졌고, 계속해서 몸집이 거대해지고 있다. 이곳의 1조 8000억 개의 플라스틱 쓰레기만 8만 t에 달한다. 이는 코끼리 10억 마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흰수염고래 4700만 마리에 해당하는 무게다.

세계의 바다에 떠 있는 전체 해양 쓰레기의 80%가 플라스틱이며, 그 플라스틱 양은 2015년 기준 약 8,500만 t에서 1억 6,500만 t이고, 지름 5mm 이하인 미세 플라스틱의 수는 5조 2500개가 넘는다. 현재 우리 은하에 있는 별 보다 많은 플라스틱 조각이 떠다니고 있는 것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걷어내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들의 먹이가 되어 그들의

성장과 번식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이 강과 바다뿐만 아니라, 석회암이 균열된 곳이나 빗물을 타고 흐르며, 도로나 쓰레기 매립장, 경작지 등지의 빗물과 하수도 틈을 타고 지하수가 있는 대수층으로 유입되어 세계 식수 공급량의 25%를 차지하는 지하수도 오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미국의 한 민간단체의 조사 결과, 세계 14개국의 수돗물 시료 159개 중 132개, 83%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고, 이 중 98%가 의류와 섬유제품에 사용되는 화학섬유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됐다.

2018년에는 전 세계 9개국 11개 브랜드 생수 260병을 조사한 결과, 단 19개를 제외한 241개, 93%의 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세계적으로 팔리는 아쿠아피나(Aquafina), 다사니(Dasani), 에비앙(Evian), 네슬레 퓨어 라이프(Nestle Pure Life), 산 펠레그리노(San Pellegrino) 등 소위 '고급'이라 불리는 고가의 생수를 포함한 5개 제품과 특정 국가에서만 팔리고 소비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의 아쿠아(Aqua), 인도의 비슬레리(Bisleri), 멕시코의 에퓨라(Epura), 독일의 게롤슈타이너(Gerolsteiner), 브라질의 미날바(Minalba), 중국의 와하하(Wahaha) 등 6개 제품이다.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 입자 중 머리카락 굵기의 100마이크로미터(μm ·1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m) 크기는 1L당 10개, 이보다 작은 입자는 1L당 313개나 검출됐다. 평균적으로 1L당 325개가 발견된 것인데, 이는 보통 생수가 수돗물보다 깨끗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로, 수돗물에서 1L당 평균 4.3개, 최대 60개가 발견된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이며, 오염도가 가장 심한 제품은 1L당 10,390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캐나다의 한 TV프로그램의 조사에서도, 역시나 생수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에는 유리병에 담긴 것도 포함되어 있다. 30~50여 개의 생수에서는 레이온과 폴리에틸렌이 검출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소금, 설탕, 꿀, 맥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은 검출되고 있다. 2018년 그린피스가 세계 16개 나라 28개 지역 소금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90%, 해염, 암염, 호수염, 정제염 전부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고,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한국의 천일염 제품 3개 모두에서 kg당 100~200개가 검출돼, 해염의 미세 플라스틱 함유량 순위에서 16개국 중에 8위를 기록했다.

2013년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지에서 모은 설탕과 꿀에서, 2014년 독일의 24개 유명 맥주 중 10개에서, 2015년 프랑스와 2016년 영국에서는 공기 중에도 각각 미세 플라스틱 섬유가 검출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미세 플라스틱은 티백에서도 발견된다. 작년에는 캐나다 연구팀이 티백 한 개를 물에 넣고 끓이자 116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과 31억 개의 초미세 플라스틱, 총 147억 개 플라스틱 조각이 배출된 것이 발표됐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들의 재배 방식, 환경과 다를 바가 없는 이탈리아의 채소와 과일에서도 1그램당 최소 5만 2050개에서 최다 22만 3천 개까지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독일의 연구팀이 '바다로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량 빙하 속에 축적된다'라고 보고한 연구에서는, 2018년에 북극해의 빙하 핵(ice core) 1ℓ 에 평균 1만 2000개씩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사실로, 연구를 시작한 2014년 봄 보다 2~3배 많은 수치로 늘어, 오염도가 심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작년, 독일과 스위스 연구팀이 북극 스빌리드에 온 눈 분석 결과, 1리터 당 무려 10,000조각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 입자가 너무 작아 출처를 알기 어려운 다수의 오염 물질들을 비롯, 고무 조각, 페인트 조각, 합성 섬유도 포함돼 있었다. 연구진은 바람을 타고 미세 플라스틱이 옮겨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꽃가루 크기와 비슷한데, 중위도 지역의 꽃가루가 대기를 통해 북극에까지 확산되고, 사하라사막의 먼지가 3500km 이상을 날아 북동대서양에까지 다다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북극은 지구에서 가장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잘 보존된 곳인데, 인간의 손길이 별로 닿지 않은 지역까지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것이다.

2019년, 영국·프랑스 공동연구진에 의하면, 도심 100km 외곽의 청정지대로 불리는 피레네산맥에서, 대기 1m³당 미세 플라스틱 365개가 매일 축적되고, 이것이 눈·비에 섞여 지상으로 낙하하거나 바람에 실려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세 플라스틱이 바람을 타고 100km 간다는 의미로, 대기 오염이 파리나 중국 둥관 등의 대도시 중심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수집된 3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 중 약 80% 이상이 머리카락 두께인 7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50% 이상이 머리카락 두께의 절반도 안 되는 25μm 이하였으며, 25~50μm 크기인 것도 30%를 넘었다. 이들은 "측정지가 오염원에서 멀리 떨어진 산 정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거의 모든 곳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사실상 플라스틱 안전지대는 더 이상 없음을 알렸다. 이 밖에도 중국, 이란, 프랑스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대기에서 검출된 바 있다.

이 정도라면 이미 인간의 몸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실제로 2018년에 오스트리아 환경청이 유럽과 러시아, 일본 국적자 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원의 대변에서 10g 당 평균 20개의, 50에서 500마이크로미터 크기, 최대 9종류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가장 많이 발견된 종류로는 폴리프로필렌(PP)과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였다.

2018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3억 5900만 톤. 2018년도 세계시장의 PET 생산량은 7,930만 톤으로, 아마도 당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가장 많은 부분인 약 22.1%를 차지하며 이 중 5,550만 톤이 섬유 및 필라멘트 응용분야에 사용됐다. PET는 폴라폴리스(플리스), 생수·음료수·소스 등의 액체와 가루를 담는 병, 세(정)제, 포장 틀, 냉동 간편식 용기, 열 보존 구급 담요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PP의 2018년 생산량은 5600만 톤, 15.6%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과자, 음식 등의 포장, 병뚜껑, 주방도구, 밀폐용기, 전자레인지 용기, 빨대, 전기주전자(커피포트), 도시락, 옷, (수송)관, 자동차 부품, 지폐, 포장 테이프, 수술 도구와 공급품, 조립 모형 등 다양한 분야에 고루 쓰인다.

PET와 PP은 2015년 기준, 포장 소재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많이 쓰이고 PE(폴리에틸렌), PS(폴리스타이렌)과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사용되는 소재들이기도 하다. 두 소재가 특히 먹고 마시고 입는, 인체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로, '섭취하는 것을 통해 그것이 담겨있던 용기의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으로 유입된다'는 가설의 추론이 가능하다. pp은 내열성이 우수해 전자레인지에 가열이 가능하고, 다른 플라스틱과 달리 환경호르몬이나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하다고 알려졌지만, 환경호르몬이나 다른 유해 물질은 피할 수 있을지언정, 모순되게도 정작 소재 자체가 유해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생수 1L당 평균 325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면, 생수만 따져봤을 때, 하루에 1리터를 마시는 사람이라면 1년에 총 1만여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섭취하게 된다.

소금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 평균 개수와 세계 평균 하루 소금 섭취량인 10g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소금을 통해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1인당 매년 2000개에 달한다고 한다.

2017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 연구진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와 해덕·고등어 등 영국 식탁에 오르는 어류 3분의 1에서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발견돼, 수산물을 즐기는 사람은 이를 통해 서만 1년에 1만 1000개가 넘는 미세 플라스틱 조각을 먹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 세계자연기금은 호주 뉴캐슬 대학과의 연구에서 1인당 미세 플라스틱의 평균 섭취량이 1주일에 약 2천 개,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인 약 5g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한 달이면 칫솔 한 개 무게인 21g, 1년이면 공깃밥 한 그릇 무게보다 많은 250g, 10만 4천 개 이상을 먹는 셈이다. 섭취하는 주된 경로는 마시는 물. 91%에 달하는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을 식수에서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나머지는 갑각류와 소금, 맥주 순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UBC) 연구진도 미세 플라스틱 함유량 관련 연구들과 미국인의 식습관 등을 분석한 결과, 한 사람이 호흡과 음식물 섭취로 흡수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성인 여성의 경우 연간 9만 8천 개, 성인 남성 12만 1천 개, 아동은 남녀 각각 8만 1천 개, 7만 4천 개로, 성인은 매일 267~330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하는 셈이다. 특히, 플라스틱 병에 든 물만 마시는 사람은 연간 9만 개, 수돗물만 마시는 사람은 4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추가로 흡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여기까지 개인 블로그에 발행, 이하 수정할 초안)

유엔 환경계획(UNEP) 등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6년 동안 생산된 전 세계의 83억t의 플라스틱 중 50억t은 매립장으로 가거나 바다로 배출됐다고 한다. 생산량의 절반에 가까운 39억t이 2002년~2015년 13년 동안 생산되었고, 재활용된 양은 단 9%인 5.67억톤. 여러 차례 반복 재활용되는 양은 1억 톤에 지나지 않아, 한 번 재활용된 나머지 5억톤은 다시 버려지게 된다고 한다.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 톤에서 2015년 4억 700만 톤으로, 65년간 203.5배로, 20.250%가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이 8.4%에 이르고, 2007년부터는 10년간 42%나 증가해, 2017년에는 3억4,800만 톤을 기록했다. 2016년 3억 4,000만 톤, 2018년에는 3억 5,900만t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평균 생산량은 3억 6,350만t이다. 이 중 바다로 유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연간 최소 478만t에서 최대 1천275만t. 이는 최근 연간 참치 포획량인 600만t보다도 많은 양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10년부터 2015년의 평균 생산량 증가율이 4%임을 감안했을 때, 2020년의 생산량은 약 4억t. 현재의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패턴이 이어질 경우, 2050년쯤이면 11억2400만t으로 생산량이 3배 증가해, 총 120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로 지구가 뒤덮히고, 바다는 물 반, 고기 반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조지아주립대 공동연구팀은 2017년 발표한 논문에서 "현재의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패턴이 이어질 경우, 2050년쯤이면 총 120억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에서만 연간 16만~17만t 정도의 각종 쓰레기가 육상에서 직접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지만, 해양수산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매년 걷어내는 양은 10만t을 밑돌고 있다.

2015년 기준, 전 세계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1억 6천 5백만 톤. 특히 2017년에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라 불리는 지름 5mm 이하 조각이 바다에 15~51조개 있는 것으로 추정, 현재 우리 은하에 있는 별보다 많은 플라스틱 조각이 떠다니고 있다.

2010년 플라스틱 폐기량은 2억 7천500만 톤에 이르러 2011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2억

8천만과 거의 맞먹는다. 1분마다 트럭 1대 양의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있는 것. 이 상태로 지속되면 2030년에는 1분마다 2대, 2050년에는 1분마다 4대 꼴이 된다.

이 중 재활용된 양은 단 9%인 6억t. 2015년 기준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47%가 포장재였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포장재는 재활용되는 5%를 제외하면 95%가 버려진다. 종이(58%)나 철강류(90%)의 재활용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비용화하면 연간 800~1200억 달러, 한화로 94조 5천억~145조원에 달한다.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경제적 손실은 2013년에만 80~130억 달러, 약 9조4416 억~15조5천억 원에 이르고 관광, 어업에 6억3천만 유로, 853억 원의 피해를 주며, 현재 플라스틱이 막은 하수구를 뚫거나 해양 내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400억 달러·약 48조원)이 전체 플라스틱 생산자의 이익보다 더 많다. 2014년 기준, 플라스틱의 자연자본 비용(자연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사용, 폐기 등에 따른 연간 비용은 750억 달러로 플라스틱 포장재사업의 이익 400억 달러를 초과한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매년 25억 달러, 3조 94억이 소비된다.

(중략)

너무 절망적이라고 포기하고 단념하긴 이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가오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기후변화라는 거대함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막해질 수도 있지만, 의외로 해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먹고·입고·쓰고·버리는 등의 모든 나의 소비와 행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고 알기, 지구와 자연생태계, 기후변화 등에 계속해서 관심 갖기, 친환경적인 습관과 사고방식을 늘리고 실천하기 등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 일까.

과학자들에 의하면 형광등, 백열전등 대신 절반 정도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LED전구를 선택하는 등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절약하기, 재생 에너지 같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쓰기, 아마존 산림을 포함해 주변의 녹지 보호, 불편을 감수하는 등의 우리의 생활양식과 행동을 변화로 지구 온난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한다.

(중략)

더 나아가, 모든 소비를 할 때 소재와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다수의 플라스틱 성분명에 들어가는 ‘폴리(poly)’나 ‘수지’가 들어갔는지 보고, 화장품은 성분 분석앱을 활용 할 수 있다. 솔직히 아무리 지구를 사랑하는 이라도, 골치 아프고 번거로운 일이다. 소비자와 시민으로서 기업과 정부에게 ‘플라스틱 없는 제품’ 인증 도입-과 같은 것을->제안 등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세제는 천연세제 베이킹소다, 구연산, 과탄산소다, 소프넛 열매 등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칫솔은- 칫솔모 교체형이나 나무 칫솔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특히 새제품 보다는 중고를, 내구성이 떨어지는 값싼 제품 말고 조금 비싸도 질 좋-은->고 유행 타지 않는 것, 공산품 보다는 수제품을 구매하자.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약 35%는 합성섬유 제품 세탁 과정에서 발생된 미세섬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옷은 가진 옷으로 오래 입고, 되도록 꼭 필요할 때만 사도록 하자. 소재는 천연섬유를 고르되, 그 중에서도 마(아마-린넨, 저마-모시, 대마-삼베, 황마-주트), 나무 유래 섬

유 '텐셀', 천연 고무 소재 '울렉스', 파인애플 잎으로 만든 가죽 '피揶텍스'와 같은 식물성 섬유를 애용하자. 주의할 점은 콩섬유, 죽섬유, 그 밖에 옥수수, 해조류, 알로에, 우유 등으로 만든 섬유는 이름 때문에 천연섬유로 오해하기 쉽지만 이를 원료로 가공된 합성소재일 뿐이다.

다만, 천연 식물성 소재인 면은, 면의 재료인 목화 1kg 재배에만, 2019년에 서울시민 한 명의 일일 수돗물 소비량인, 평균 292리터의 68.5배에 달하는 2만 리터의 엄청난 물을 필요로 하며, 병충해가 심해 재배 면적은 전 세계 농지의 5%에 불과한데 살충제는 전 세계 살충제의 25~35%가 소비된다. 또한 제초제, 화학비료, 합성비료와 토양 첨가제, 고엽제 등의 사용 또한 어마어마해 땅과 물의 오염은 물론, 이런 물질에 노출되는 농민들의 건강 위협, 주변 생태계 황폐화를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수확철에는 아동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이후, 20여 단계의 가공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중 표백 과정에서는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고, 수지가공과정에서는 발암의심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된다. 방축 과정에서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액체암모니아가 사용되고, 염색과정은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원가 절감이란 이름 아래, 지금도 섬유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속에서 위험한 노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듯, 재료는 '천연'일지언정,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건강한 소비라고 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면 이니셔티브(Better Cotton Initiative, 이하 BCI)'라는 비영리 조직이 결성되었고, 지속가능한 방법의 면화 재배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촉구하고자, 생물의 다양성과 토양의 질을 보호하고, 유해한 화학물질 및 물 사용을 최소화해 생산한 면에 BCI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면을 소비해야 한다면, 이 인증을 확인하면 어떨까.

(중략)

인간은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의미 있는 것을 남기고 싶어 한다.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단지 올바른 선택과 실행만으로 우리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인류와 지구를 구해낸 위대한 세대가 될 수 있다. 이보다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이자 유산이 있을까? 어떤 훌륭한 예술 작품이나 사상, 이론도 멸망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이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우리는 후손에게 빌려 쓰는 자연과 지구를 건강한 상태로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지구는 우리의 것인 동시에, 우리의 것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투표

4월의 두 번째 토요일. 6시에 투표소에 도착하기 위해 5시에 기상하고 싶었지만, 바닥으로 몸을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을 거스르지 못하고, 2시간 후에야 정신을 차렸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때 아닌 겨울 장갑과 신분증을 챙기고 집을 나섰다. 건물 밖 원편에, 이미 활짝 핀 꽃의 삼분의 일쯤은 바닥에 떨어진 벚나무가 보였다. 집에서 자진하여 격리 생활을 하느라 꽃이 핀 줄도 몰랐다. 라디오와 사람들이 카카오톡에 걸어둔 사진을 통해 개화 소식을 접하며 꽃구경을 가고 싶어 했지만, 정작 바로 집 앞에서 벚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다. 벚꽃을 감상하고픈 욕구는 잠시 미뤄두고,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서둘러 발

을 움직였다.

골목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토요일이라 늦잠 자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예상이 맞아들어 가는 듯했지만, 큰 길로 나가자 부지런한 이들이 꽤나 많이 활보하고 있었다. 진작에 투표를 마치고 돌아오는 듯, 투표소 쪽에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도 몇몇 보였다. 투표소에 가까이 다다르자, 원래 동주민센터가 있던 자리에는 공사장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노란색과 흰색의 플라스틱 안전모를 쓰고, 바쁘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보였다. 바로 옆 골목으로 몇 걸음 올라가니, 플라스틱 비닐로 씌워진 선거벽보 맞은편에, 동사무소가 이전한 건물이 있었다.

차 두 대 정도 댈 수 있을만한 시멘트 마당 한 쪐에는, 기표소가 외롭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건물 입구부터 마당을 지나는 길에는, 굵은 청테이프로 덕지덕지 동선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 선의 끄트머리에는, 지점 표시와 함께 하얀 면장갑을 끼고 노랗고 검은 플라스틱 총 같이 생긴 것을 든, 중년의 남성으로 짐작되는 이가 서있었다. 가깝게 다가서자, 멈추라는 손동작을 한 뒤 내 이마에 붉은빛을 내뿜는 적외선 온도계를 겨누었다. 유전자에 새겨진 기억탓인지 썩 유쾌하지 않은 과정이었다. 그런 뒤, 그 기계의 계기판 숫자를 확인하더니, 이번에도 역시 말 대신, '지나가도 좋다'라는 듯한 수신호를 보였다. 그다음 나를 맞이한 것은, 접이식 플라스틱 탁자 위에 놓인, 플라스틱 통에 담긴 손 소독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일회용 비닐 위생 장갑, 그리고 그걸 나눠주는 (아마도) 중년의 여성이었다. 나는 손바닥 위에 소독제를 놀려 짠 후, 열심히 구석구석 비벼 세균을 없애는 의식을 치렀다.

그다음, 주머니에서 가져온 장갑을 꺼내 보이며, "개인 장갑 가져오면 비닐장갑 안 껴도 된다면서, 저는 이거 낀게요."하고 지나가려고 하자, 그의 눈이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그 장갑 껴도, 비닐장갑 끼셔야 돼요."라고 했다. 반발하고 싶었지만, 뒤에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고, 아침부터 팬한 실랑이를 하며 얼굴을 붉히고 싶지도 않아, 잔뜩 굳어진 얼굴과 비꼬는 말로, "그럴 거면 이 장갑은 낀 필요도 없겠네요."하고 불편한 기색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벌써 착용을 마친 겨울 장갑을 도로 벗고, 억지로 받기 싫은 비닐장갑을 받아들고서, 마음만큼이나 무거운 발걸음을 다시 떴다. 죄책감과 억울함 같은 것들이 몰려왔다. 깊은 한숨이 절로 튀어나왔다. 하루의 시작부터 무언가 끓어오르는 감정이 수증기처럼 피어올랐다.

투표소가 있는 3층까지 오르며, 이곳에 오기 전까지 가볍던 걸음이 내딛기 힘겨워졌다. 잠이 덜 깨서도 아니고, 아침을 먹지 않아서도 아니고, 평소 이 시간에 듣는 라디오를 듣지 못해서도 아니었다. 느릿하게 가는 앞사람과 간격을 유지하느라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목에 커다란 돌덩이가 박혀, 내 숨을 조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다.

위쪽에서, 먼저 올라가고 있던 한 어르신께서, "아직도 더 가야 돼?"하며 "아이구, 왜 이렇게 멀어~."하고 시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저 표면적으로 모든 뜻을 내포한 말은, 내 귀를 통과하며 온갖 의미들이 달라붙어, 희곡의 의미심장한 대사로 탈바꿈하여 재해석되어, 심장에 박혔다. 내게도 너무도 멀고 먼 길들. 언덕배기, 계단, 승강기 없는 3층.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배려하지 않은 듯한 사전투표 장소도 그중에 하나였다. 훨체어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언덕, 혹은 건물 입구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야 할 게 뻔했다. 목발을 짚어야하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난감하기는 매한가지일 것이다. 우편으로 배달되어 온, 선거홍보물과 함께 동봉되어 있던 투표소 안내 용지에도, 사전 투표소가 언덕 위, 3층에 있다거나, 훨체어 접근이 어려우니 총선 당일 투표소를 이용해달라는 양해의 말 같은 것은 보지 못했다. 한숨을 다시 내쉬지 않을 수 없었다.

3층의 입구에는, 간격 유지 안내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분이 서있었다. 문 입구부터 시작된 간격 유지 표시는, 기분 탓인지 몰라도 1m도 채 안 되어 보였다. 투표소도 생각보다

붐볐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보였다. 대기하는 유권자는 꽤 있었지만 빠르게 순서가 돌아왔다. 본인확인 절차를 위해, 가져온 선거인명부의 일련번호 종이와 플라스틱 신분증을 건네고, 일회용 마스크를 내려 얼굴 확인을 한 뒤, 플라스틱 기기에 플라스틱 페으로 전자 서명을 했다. 습관이 무섭다고, 무의식적 자동반사로 서명을 할 뻔해서, 다시 지운 뒤에 이름을 따라 적어야 했다. 그리고는 플라스틱 인쇄기가 토해낸, 띠 같은 투표용지 하나와 메모지 같은 또 다른 하나를 받아 들고 대기줄에 섰다. 내 옆에서 본인확인을 거친 사람이, 나를 못 본 건지, 못 본척하는 건지, 아주 당당하게 새치기를 했다. 그런 경험은, 특히 기성세대가 자신보다 어려 보이는, 작은 체구의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듯 앞지르는 것은, 너무도 익숙해서 놀랍지도 않았지만, 급할 것도 없기에, 양보의 미덕을 보이며 그저 무시하는 편이 상책이었다.

잠시 기다리며, 난생처음 받아 본 기다란 투표용지에 새삼 놀라기도 하고, 빠른 기표를 위해, 지지하는 당을 찾아 도장 찍기 쉽게 손으로 잡아두었다. 수많은 당에 밀려 저 아래에 있는, 37개 중에 차라리 아래서부터 거꾸로 찾는 게 더 빠른 그 당의 위치를 보고 있자니, 웬지 그 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정부와 사람들의 관심도, 대한민국 청년들의 처지와 닮은 것 같아서 씹쓸해졌다. 몇 시나 되었나 벽 쪽을 바라보니, 갈색 플라스틱 벽시계가 8시 15분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드디어 빈 기표소가 생기고, 차례가 되어 들어갔다. 뱀처럼 거대한 비례정당 투표용지는, 선반 위에 다 들어오지도 않았다. 끼고 있는 비닐장갑이 조금 불편했지만, 플라스틱 도장 꽃이에 플라스틱 줄이 연결된 기표도장을 잘 잡고서,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히 인주를 찍고, 맞게 기표했는지 재차 확인을 한 뒤,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고 기표소를 나섰다.

사전투표 첫날의 풍경에 대한 묘사가 담긴 신문 기사에서는, 비례정당 투표용지가 길어서 세 번 접어야 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혹시 투표함에 용지가 다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닐까 걱정했다. 이전까지는 투표함에 용지를 넣을 때 가볍게 쑥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미 땃리를 틀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종이들이 거의 가득 차 있는 것이, 투입구에 종이를 넣는 동안 그 틈새로 보였다. 손을 놓으면 웬지 그대로 들어가다 말고, 비져나온 채로 튀어나와 있을 것만 같아서, 용지에서 손을 떼기가 조심스러웠다. 다행히 살짝 구겨 넣다시피 하며, 내 손에 있던 종이는 상자 안으로 잘 안착했다.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해보니, 투표를 완료하기 까지는 단 4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플라스틱 비닐장갑이 내 손에 머문 시간은 짐작기로 약 1분 정도.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오기까지는 한 15초 걸렸을까. 장갑을 한 쪽만 켜어도 됐겠다는 후회가 뒤늦게 밀려왔다. 이대로 장갑을 벗어야 하는 걸까. 웬지 어디 놀이터 가서 모래놀이라도 하던지, 아니면 뒷산에 가서 쓰레기라도 주워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쓰레기를 담을만한 봉지 같은 것은 없었다. 빈속에, 빈손으로, 이 시간에 투표하러 온 것이 생각이 짧았음을 깨달았다.

투표소를 나서니 입구에는 아까보다 더 길게, 줄이 문밖까지 늘어서 있었고, 계단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내려가는 인파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문 바로 앞에는, 플라스틱 테이프로, '비닐장갑 버리는 곳'이라고 인쇄된 종이가 붙어 있는, 쓰고 난 플라스틱 비닐장갑을 위한 거대한 파란색 플라스틱 비닐봉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이미 수많은 손을 단 몇 초간 거치는 것으로 목적을 다한, 투명한 것들이 한데 뭉쳐, 불투명한 숙제로 가득 채워져 남아 있었다. 그 옆에는 먼저 투표를 마친 어머니가 아직 투표가 끝나지 않은 자녀를 기다리며 서있었다. 곧 뒤이어 나온 옛된 얼굴이 보였다. 선거권 연령 하향이 더 일찍 결정됐다면, 내가 만 18세일 때도 선거권이 있었다면 세상은 조금 더 달라졌을까 싶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한두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협소한 계단에 추월하며 오르내리는

입, 퇴장 행렬은 끝이지 않았다. 지나면서 기침을 하거나 물리적 접촉을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때까지의 앞뒤 간격 유지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옆 간격 유지가 어려우니까 그나마 앞뒤로라도 유지해야 안전한 걸까. 운동할 때 나온 것 빼고는 거의 두 달 만의 외출인데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느라 인파가 몰리는 곳은 가지 않았던 터라,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편치 않았다. 생각해보면 1월 이후로는 이제 길을 걸을 때, 사람도 차처럼 피하고, 최대한 멀리 걸으려 신경 쓰는 존재가 돼버렸다. 사실 총선 당일의 더 가까운 투표소를 두고, 굳이 더 면 곳으로, 이른 시간에, 사전투표를 하려 온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과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함이었는데. 아마도 다들 비슷한 생각을 했으리라.

투표소를 빠져나오며, 1층의 발열 검사하는 곳과 장갑 나눠주는 곳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 비닐장갑 쓰레기통도 만원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마땅한 장소도 없었거니와, 기분이 상하여 모든 게 귀찮아진 나머지, 투표 인증 사진을 찍는 것 따위는 잊고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멀어지며, 생애 첫 사전투표에 대한 설렘이나, 투표를 일찍 마친 뒤의 후련함이나 뿌듯함보다는, 지구에 해가 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무력한 나 자신, 더 단호하지 못했던 나에 대한 분노, 죄책감, 자책감, 무기력 등으로 아침부터 기운이 쭉 빠졌다. 더 늦잠 자지 않고, 누군가 자고 있을 시간에 투표하러 온 것을 칭찬하는 일은, 진작에 뒤쪽으로 밀려 잊혀버렸다. 처음으로, '찍고 싶어도, 어차피 사표가 될 테니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찍고 싶은 비례정당을 찍은 일, 그래서 어쩌면 지지정당이 국회에 입성하는, 역사적인 선거가 될 것이라는 기쁨이나 기대도, 어두운 감정들에 가려져 빛을 잃었다. 또 한때 지지했던 정당과 후보를 심판하기 위해 처음으로 그 당을 찍지 않은 일, 그 대신에 관심 없던 정당에 투표한 일 같은 특이사항도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었다.

투표 결과가 기다려지기보다는, 미리 비닐장갑 사용을 저지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게으름에 대한 반성이 앞섰다. 더불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자존감을 떨어트린, 환경감수성을 실종한, 한결같이 안일한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 선관위 그리고 그들의 조치가 원망스러웠다. 이러한 의식의 흐름은 '나로 살 수 없게 하는 대한민국'에서 '언제쯤 나는 대한민국에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로 과도하게 확장되었다. 팬스레 울컥했다.

이어서 선거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문장을 역시, 이번에도 여전히 뇌간을 스쳐갔다. 투표를 하면 세상이 바뀌긴 하는 걸까, 아니라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생각이 들수록 더 더욱 해야 하고, 특히 소극 행정과 천하태평의 자세로 일관하다, 재외 국민의 '선거권 박탈'이라는, (어쩌면 약간의 계획되고 계산된) 엄청난 사고를 치고도, 아무 일 아닌 듯, 무심한 태도를 보이는 현시점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모여 있는 역 근처를 지나는데, 투표소에 가기 전에도 마주쳤던, 반갑지 않은 색의 옷을 입은 선거운동원이 보였다. 기성세대의 여성, 그 옆에는 같이 얘기를 나누는 노령층 여성들이 있었다. 편협한 시각인지 몰라도, 소위 '잘 사는 지역'도 아닌 우리 동네에서, (어쩌면) 그 당의 지지자와 협력자를 보는 모순이란.

잠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가, 기분도 전환할 겸, 플라스틱 이어폰을 귀에 꽉고 라디오를 켰다. 더딘 걸음으로, 투표소에 갈 때보다 더 긴 시간이 걸려 도착한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춰 세웠다. 복잡 심란한 마음을 아름다운 벚꽃을 보며 조금이나마 정화시킬 수 있었다. 그 아름다움에, 괴로움이 더욱 깊어지길 했지만, 지척에 두고도 보지 못했던 아쉬움을 담아, 올해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연분홍의 봄기운을 사진에 열심히 담았다. 플라스틱 휴대전화로.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문 앞에서 기다리다 반기는 귀여운 생명체의 사랑스러움 덕

분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일상 속에 플라스틱이 전염병처럼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스크와 플라스틱 비닐장갑 두 개, 총 세 개의 일회용품을 소비할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날이었던 탓인지, 유난히 플라스틱이 눈에 더 두드러져 보였다. 이 글을 쓰기 위해 두드리고 있는 노트북도, 그것이 놓여 있는 책상의 다리 부품도, 그 옆의 서랍도, 시야 왼편에 들어오는 충전기와 보조 배터리, 오른 편에 보이는 마우스, 머리핀, 인터넷 공유기, 등등.. 차라리 플라스틱이 아닌 것을 세는 게 빨라 보일 만큼, 온 사방이 플라스틱 투성이다. 그야말로 플라스틱한 하루가 아닐 수 없다. 나중에 내 무덤가가 잔디밭이 아니라 플라스틱밭이 되는 것도, 어쩌면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 아닌, 필연적인 장면인지도 모르겠다. 전염병은 치료 약이라도 만들 수 있고, 소독제로 바이러스를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플라스틱은 500년 넘게 분해되지 않고 자연 곳곳에 살아남아, 수많은 생명을 아프게 하고, 죽게 하고,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환경에 대한 걱정을 하다 보니, 나무 23만 그루를 베어 만든 종이들의 미래가 궁금해진다. 그 수많은 투표용지들은, 개표 후에 또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근심이 는다. 그냥 그대로 제 몫을 다하고 또 일회용품처럼 그렇게 버려지는 걸까.

과연 개표 결과가 나오면 나는 웃을 수 있을까. 언젠가 차악을 가리는 것이 아닌, 좋은 후보와 당, 정책이 많아서 누굴 뽑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는 날이 오기는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선거를 죽기 전에 경험하긴 할 수 있을까.

소개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마주할 때 어려운 것 중 하나를 꼽자면 내게는 단연 자기소개다. 낯가림과 무대공포증이 있어 시선이 모이는 게 불편해서이기도 하지만, 첫 만남에서 입을 떼고 본격적으로 하는 첫마디가 자기소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것이 외적인 모습보다 첫인상에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첫인상은 또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지속에 영향을 줄 것 이기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자기소개를 멋지게 하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소개 할 때가 되어서야 ‘미리 좀 더 준비할걸..’하며 뒤늦게 후회하게 된다. 또 ‘무슨 얘기를 하지?, 어떻게 말하지?’ 머뭇거리게 되기도 하는데, 어느 지점이 명확하지 않아서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다. 그리고 보면 자기소개라는 것에 대해 제대로 깊이 생각해본 적도 없는 것 같다. 이참에 내 자기소개를 돌아보며 구멍들을 찾아내보려고 한다.

자기소개 시간에, 내가 가장 먼저 입을 열기 전에 하는 것은,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위해, 떨지 않고 전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턱은 들고 어깨와 허리를 짹 곧게 펴고 몸을 바르게 한다. 긴장으로 손바닥이 습해지면 떨림을 완화하기 위해 크게 심호흡을 하고, ‘잘 할 수 있어!’하고 되뇌기도 한다. 고개와 시선은 정면을 향하게 한 뒤, 배에 힘을 주고 발화한다. 마이크를 쥐어야 할 때는 손의 떨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손에 한껏 힘을 주어 마이크를 꽉 쥐거나, 두 손으로 마주 잡는다. 그런 다음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하는 데 힘쓴다. 말하는 중간에는 사람들 눈이나 얼굴을 보면 떨림이 더 심해져서, 나도 모르게 먼 곳이나 정면, 혹은 편하거나 친한 사람 쪽으로만 주

구장창 눈을 두게 된다. 바람직한 발표 자세와 관련된 글들을 보면 청중에게 고르게 시선을 분산시키는 게 좋다고 하는데 아직 내게는 쉽지 않은 과제다.

이런 연유로 발표를 꺼리는 나지만, 의외로 규모가 작은, 일상적인 주제나 목적의 편안한 자리에서는, 먼저 나서는 사람이 없어 눈치싸움이 시작될 것 같으면, 자원하여 첫 번째를 자처 한다. 발표공포증인지 대중공포증인지 시선공포증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그 공포증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지만,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할 말을 잊지 않기 위해 머릿속으로 되뇌느라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거나, 차례가 가까워질수록 빨라지고 커지는 심장박동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빨리해버리고 편해지는 게 낫지 싶다. 당장의 능력이나 시간을 되돌려 학업 성적, 경력 등과 같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도, 용기를 내고 자신감을 가져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건 당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딘가에서 읽은 바로는 ‘타인과의 관계나 여렷이 모인 자리에서, 분위기를 이끌거나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싶다면, 먼저 말을 꺼내라’고 한다. 꼭 이런 목적 때문에은 아니지만, 연습을 해둬야 실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고, 기회가 있을 때 많이 시도해보면 좋으니까. 게다가 우리의 소중한 시간도 절약하고, 적극성까지 보여줄 수 있는 계기다. 그럼에도 다짐과는 달리,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낯선 이가 많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관련 지식이나 통찰이 필요한 때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여전히 수도 없이 망설여진다. 멋있고 싶은 욕심이 과한 걸까? 아니면 아직도 완벽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있는 걸까?

자기소개를 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 말할 때도 늘 그렇지만, 특히 더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소외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어, 신조어, 은어, 혐오 표현, 일본식 표현은 지양하고,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평등한 단어를 선택하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 줄임말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쓰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때에는 사용하기에 앞서 설명을 꼭 한다. 그런데 이런 언어 습관을 들이다 보니, 사실과는 다르게, 때론 유행과 거리가 먼 고루한 사람, 혹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옛날 사람으로 인식될 여지를 제공하게 되는 듯하다. 게다가 다소 건조하고 지루한 말하기가 되어 가고, 바르고 격식 있는 어휘 사용자들이 많을수록 자리가 딱딱해지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재미의 요소를 잃지 않으면서 고운 언어를 쓸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외래어의 사용 또한 피하는 편인데, 지구촌 시대에, (2005년 기준) 4만 4천여 개의 외래어가 존재하는 한국에서, 영어 학습자인 내가 이를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인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선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지만, 가끔 단어가 한국어로 뛰였는지 입에서만 맴돌고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 한국말을 놔두고 영어로 된 어휘를 쓰는 사람을 본다면, 나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으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어쩌다 한, 두 번이 아니라 빈번하게 쓰는 사람이라면, 과시하고 싶거나, 한글 보존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소개의 내용은 모임이나 행사 등의 장소와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이름을 말한 뒤에, 멀리서 왔다는 것을 부각하여 그 자리에 얼마나 열성적인지를 드러내고 싶거나, 가까운 동네 사람이나 같은 방향으로 귀가하는 사람을 찾고 싶을 때, 사는 지역을 말한다. 거주지가 오류동인데, 오류라는 어감이 좋지 않기도 하고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지역에서 만나는 경우가 아니고는 그냥 구로구라고 말하곤 한다. 요즘은 언급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서, 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아니면 굳이 말하지 않는다. 지금보다 어렸을 때는, 관심사나 좋아하는 것을 덧붙이곤 했는데, 근래에는 모임이나 행사를 알게 된 계기, 참석하게 된 이유, 기대하는 바, 그날의 공동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해 하고 싶은 말 등을 하느라고 생략

하게 된다. 소속된 공동체에서 소개할 기회가 생길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맡은 자리나 하고 있는 역할, 언제부터 활동했는지, 참여한 활동 등을 얘기하는데, 기분이나 몸의 상태에 따라서 내용도 그때그때 달라진다. 일부는 상황에 따라 바뀌더라도 공통된 큰 기본 틀을 준비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대목이다.

그 밖에 신경 쓰는 것이 있다면, 소극적이거나 성의가 없게 느껴지지 않도록, 타인의 발언 시간을 뺏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말의 길이는 너무 짧거나 길지 않게 하려고 한다. 또 이전에 내 소개를 들은 적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이전과 다른 내용과 좀 더 새로운 언어들을 담으려고 노력한다.

여기까지는 다른 이들의 소개와 거의 비슷하겠지만, 보통의 사람들과 이전의 나와는 달리 밝히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 나이, 전공, 직업이 그것인데, 대학 비진학자였던 시절과 비노동자였던 시기를 겪은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그때의 나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다. 또한 탈학력주의, 탈학벌주의, 탈노동, 탈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이기도 해서다.

예전에는 남들이 그러하듯 거리낌 없이 나이를 얘기하곤 했다. 경로사상이 미덕이라고 학습 받았고, 사유를 거치지 않고 그저 안일하게 사회화를 이루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라서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이라 여겼다. 또, 무게가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연령주의의 심각성을 절감하기 전이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짚음이나 어려 보이는 것이, 경쟁력이 아니라,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성숙하거나 지혜롭다,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도 수없이 재확인했다. 그래서 더는 드러내지 않는 부분이 됐다. 나이주의로 인한 연령차별과 위계의 서열화에 동참하고 싶지 않다면, 이제 더 이상, 타인에게 나이를 알리지도, 묻지도 않길 부탁 드린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처음 만난, 또는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에게 혈육처럼 호칭을 부른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받아들여진다. 게다가 이와 관련해서도 잘못된 사회화의 영향으로 윗사람에게 뭔가 더 받아들여 모시고, 먼저 많이 움직여야 할 것 같은 압박, 아랫사람에게는 뭔가 사주거나 돈을 더 많이 내야 할 것 같은, 더 양보하고 챙겨주고, 의젓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은 분위기와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사회적 통념이 이전보다는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꽤 존재하는 듯하다. 숫자에 불과한 나이로부터 자유로워 지자! ‘별써 내가..’, ‘너무 늙은 건 아닐까’, ‘아직 너무 어린데’와 같은 말로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머뭇거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법적으로도, 나이가 모두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덧붙여, 요즘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나이에 관한 질문은 매우 ‘사적이고 무례한’ 것이라는 국제적인 기본 예절을 꼭 기억하자. 곁으로 한국인처럼 보여도, 외국 생활을 했던 사람에게도 같을 수 있다. 많은 (시민)사회활동가들도 달가워하지 않는 질문인 것은 매한가지다. 그러니 그냥 안전하게, 묻지 말자.

마지막으로, 나를 소개할 때 세 가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첫째는 이름. 본인은 성 평등적 관점에서 양성 쓰기(부모 성 함께 쓰기)를 지지하지만, 사실 수정까지의 부모의 생물학적 기여도는 같을지언정, 그 이후와 출생에서부터 양육에 대한 기여도는 개인적인 배경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성씨를 쉽게 선택하고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엄마의 공이 크다고 느끼기에, 엄마의 성분을 따르고 싶다. 그런데 하나의 성만 쓰면, 특별히 말하지 않는 이상, 모계 성씨를 따른다는 것은, 그저 엄마와 나만 아는 사실이 될 뿐이다. 더군다나 우리 집은 부모님의 성이 같아서, 문서로 성분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티도 안 난다. 그런 의미에서 대외적 대의를 위해, 양성을 쓴다고 치면 ‘서서최선’ 이런 식으로 써야 하는데 ‘서서 있어’, ‘서서 갈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웬지 어감이 별로이다. 그래서 그냥 고민하지 말고 깔끔하게, 가족과 별개로 독립적인 개체 자체이고 싶은 염원을 담아, 이름만 잠시 썼던 적이 있는데, 성이 ‘최’이고 이름이 ‘선’인 줄로 오인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이 또한 선택지에서 사라지게 됐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호인데, 계속 후보는 생각해내고 있지만, 이렇다 할 별칭을 선정하지 못해 보류 중인 상태다.

둘째는 ‘상태, 정체성, 가치관을 나타내는 명사로 스스로를 묘사를 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자신을 무언가로 정의하는 것은, 스스로 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타인으로 하여금 선을 긋는 것처럼, 혹은 가까워지기 어려운 존재로 느끼도록 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가 된다. 특정 명사 집단의 일부 특성을 근거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또, 영양가 없는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기에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다.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 법이니까. 누가 무엇 주의자, 무슨 활동가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된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론을 지지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뜻이 아니다. 그런데 간혹 온갖 관련된 논쟁거리를 끌고 와 쏟아붓고는 절대 반박할 수 없는 근거를 요구하는 이들이 있다. 건강한 토론이 아닌 꼬투리 잡기 식의, 답이 정해져 있는 계략으로 지식을 시험하듯, 무례하게 자신이 옳다는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 때문에, 더 지식을 쌓아 논거를 튼튼히 하기까지 함부로 선언하는 것도 잠시 멈추게 됐다. 이런 망설임은 내가 평화주의자와 겁쟁이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까지 이어진다. 말싸움이라면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최선을,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실 싸운다는 건, 한 쪽이 다른 한쪽을 존중하지 못하고, 상대보다 자신이 더 정당하고 힘이 세며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기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논쟁도 어쨌든 싸움의 일종인 다툼이니까, 평화롭지 않고 폭력적인 것은 사절이다.

앞서 말한 것 외에 ‘명사로 묘사하기’에 대한 우려는, ‘몇 개의 단어들로 나라는 존재가 설명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나는 윤리적 생산과 소비를 추구하는 생명체다. 이 윤리적 소비에는 지속 가능성, 친환경, 동물권, 인권, 노동권, 거래의 공정성 등 많은 것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하면 소비 가능한 상품은 매우 제한적이다.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데는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먹는 것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회적 존재로 타인과 관계하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단순함과 텔털함의 대명사인 최선이,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게 하는 대상으로 여겨질 모순을 견뎌야 한다. 신경 쓸 게 많고 번거로운 것을 반가워할 이가 얼마나 있을까. 사실 이건 내가 가리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우리의 지구와 모든 생물들을 위해 당연히 지켜져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사람도 지구도 둘 다 소중한데 너무 어려운 숙제다. 그래도 환경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먹고 살 곳이 없으면 우리의 삶도 없을 테니.

세 번째는 최근에 떠오른 것인데, 필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평화를 중시한다. 그래서 이를 위해 불편한 언행을 목격하고도 지적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문제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인간인지라, 외부의 평화를 택하고 내면의 혼란을 얻는다는 것이다. 타인을 배려하다가 나를 배려하지 못하고 상처받는 일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이런 사달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하다가, 서로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 전에 참여한 적 있는 ‘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이 진행한 ‘독서문화캠프 청년약국’에서 했듯, 첫 만남에 불편하거나 싫어하는 것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주의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룬 후에 소통을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을 경

우가 많을 테니, 미리 시간을 확보하거나 만나기에 앞서 사전에 서로 글로 교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내 쪽에서라도 ‘공동체 약속문’처럼 지침을 권고하는, ‘최선과 관계 맺기 안내서’와 같은 걸 건네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사람들이 편하고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의 이런 수고를, 과연 기꺼이 감당할지, 이런 글을 꼼꼼하게 읽고 숙지하고, 좋은 뜻을 좋게 받아들여줄 것인지 미지수다. 편한 것을 좋아하는 인간이고, 언제나 오해하는 이는 있게 마련이니까. 섬세함이 누군가에겐 예민함이고 피곤함이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다 보니, 모든 것에 득과 실이 있게 마련이지만,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 감당해야 할 무게가 참 버거움을 새삼 느낀다. 부단히 더 많이 배우고, 생각하고, 말하고, 써야겠다는 자극도 받는다. ‘모두의 기본이 상향 평준화된다면 고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일 텐데’라는 생각에 언젠가 ‘나의 기본값이 타인에게도 기본값이었으면, 당연한 것이 당연해졌으면’ 하고 바라본다. 이것이 세상과 사람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환경, 건강, 평등, 예술, 정치, 교육, 인문학 등 삶의 면면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임을 되새긴다. 본지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자기소개를 되돌아보며 메꿔야 할 것들과 더해야 할 배려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보람된다. 더불어 좀 더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재확인하게 된 계기라 유의미하다. 이제 다음번엔 더 나은 자기소개를 하기 위해, 다른 건 몰라도 준비 부족으로 인한 발표 불안은 겪지 않도록 소개를 채워나갈 문장들을 미리 꼭 써놔야겠다.

무제 - 채식 관련 발언문

(생략) 제가 앞서 ‘식탁 위의 불평등’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식탁 위에도 불평등이라는 게 존재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식탁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집단 내에서 서열이 높거나 나이가 높은 사람 순으로 수저를 들고 상석에 앉고 뭐 나이, 서열, 경제력, 지역 등에 따라 식탁의 풍경이 달라지겠죠. 저는 그 중에서도 신념이나 건강상의 이유에 따른 음식 선택의 평등권 보장을 적극 주장합니다.

비건이 뭔지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비건이신 분? 친하게 지내요. 저에게 비건 동지 한 분 한분이 소중하고 절실하거든요. 비건은 채소, 과일, 해초 등의 식물성 식품만을 섭취하는 가장 엄격한 단계의 채식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한국식 표현으로는 완전 채식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채식을 하는 이유를 물으시는데요, 대답이 될 만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 해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건강 없이는 성공도, 부나 명예 등도 아무런 소용이 없죠. 가끔 채식만 하면 영양 불균형 때문에 건강 해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육식주의자가 건강할까요? 채식주의자가 건강할까요? 보통 주변에서 누가 육식주의자라고 할 때 저는 아직까지 한번도 영양 불균형 때문에 건강 해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왜 유독 채식주의자에게만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물론 관심과 애정 어린 말인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힘 빠지게 하는 말보다 가장 좋은 것은 그저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말이 듣기 좋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그럼 동물들, 특히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소, 돼지, 닭, 닭의 알, 물고기들은 왜 태어났을까요? 그들의 꿈은 뭘까요? 미세먼지에 노출된 동물들, 공장식 축산이나 양식으로 길러진 동물들이 건강하고 행복할까요? 그걸 먹은 인간은 과연 건강하고 행복할까요? 인간이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도구를 가졌다고 해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채식에 대한 사설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채식의 당위성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채식하기 쉬운 환경 요구에도 힘이 실릴 것 같아서 불가피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략)

우리가 약자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힘이 약하거나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기 보단, 그 목소리들이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겠죠. 그런데 약자보다 더 약한 존재는 뭘까요? 저는 동물을 포함한 자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저항하는 것, 큰 소리로 울부짖고 눈물 흘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동물도 사람처럼 똑같이 고통과 감정을 느끼고, 이 말은 동물도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중략)

부디 인간들만 평등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셀프인재영입당 출마선언캠페인 - 채식보장국회

<https://www.facebook.com/pickmemyself2020/photos/a.107997077401632/122855559249117/?type=3&theater>

뭐좀편하게먹고싶당



서성유선

#셀프인재영입당 #채식과함께하는국회
#채식은_인간다움을위한_기본적인인권
#채식선택권은_행복추구권이자_자기결정권 #채식선택권_보장
#어디에나있는채식인_어디에나있는채식
#우리는_편하게_채식할권리가있다
#식탁소수자_존중
#채식은_개인을위한선택이아니다
#당신이소비하는것이_곧당신이다



#셀프인재영입당 #채식과함께하는국회 #채식은_인간다움을위한_기본적인인권 #채식선택권은_행복추구권이자_자기결정권 #채식선택권_보장 #어디에나있는채식인_어디에나있는채식 #우리는_편하게_채식할권리가있다 #식탁소수자_존중 #채식은_개인을위한선택이아니다 #당신이소비하는것이_곧당신이다

채식인이 꿈꾸는 세상, 채식인이 행복한 나라
21대 국회에서 이루겠습니다

7대 공약

- 공약1. 비건 급식 운영 의무화
- 공약2. 채식의 날 지정
- 공약3. 음식점 채식 등급 표시제 도입
- 공약4. 비건식 판매 의무화
- 공약5. 음식점에 4가지 성분 표시제 도입
- 공약6. 채식 선택권 보장법 제정
- 공약7. 채식, 환경 정보 포털 개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지구에서 사랑하는 자연의 동식물과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비건입니다.

먹는 것은 단순히 신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건강과 목숨을 지키는 일이고, 누군가에겐 지구를 지키는 노력이자 양심의 자유를 선택하는 일이며,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환경운동의 연장선입니다. 이는 곧 교육인 동시에 문화입니다. 세계적으로 다양성과 평등, 공존이 핵심가치인 시대, 자연과의 공존의 길인 식탁 위의 다양성과 평등도 보장돼야 합니다.

하루 두, 세 끼를 먹는 사람이라면 1년에 700~1095번 정도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간식을 먹는 횟수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겠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채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강한 선택으로 지구온난화를 늦춰 건강한 지구와 건강한 삶, 함께 만듭시다!

* 공약 설명

음식에 어떤 재료와 영양 성분이 들어가는지 알고 드시고 있나요? 음식점에도 '전 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제'를 도입하고 동물성 성분 및 아보카도, 팜유, 캐슈너트, 루왁커피 등 '반환경적, 비윤리적 성분 표시'로 알 권리와 먹거리의 안전성, 윤리적 친환경적 소비할 권리 를 보장하겠습니다!

과도한 육류 섭취는 성인병 및 암 발생률을 높입니다. '채식의 날 주 1회 지정'으로 국민 건강도 환경도 지키겠습니다!

외식할 때마다 채식 식당 검색해야 하고 갑작스레 식사하게 돼 들어간 식당에 채식이 없어 돌아 나와야 했던 채식인들을 위해 '간판 및 메뉴판 채식 등급 표시제' 도입과 모든 식당에 '한 가지 이상의 비건 음식 판매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채식 선택권 보장의 첫걸음으로 모든 단체 급식소의 '비건 급식 병행 운영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행사, 모임에서도 맘편히 채식할 수 있게 '채식선택권 보장법을 제정'해 음식 절반은 채식으로 구성하게 하겠습니다!

식생활을 넘어 친환경 소비를 이어갈 수 있게 정보들을 모아 볼 수 있는 '채식, 환경 정보 포털을 개설'하겠습니다!